

고등학생 화자들의 설득적 말하기에 나타난
청중 고려 양상 연구
—남자 고등학생 자료를 중심으로

최영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 * 이 논문은 2013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 방법 및 연구 자료
- IV. 고등학생 화자들의 청중 고려 양상
- V. 결론

I. 서론

국어교육 및 화법교육은 합리적 설득 담화 소통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책임 있는 의사소통 실천자를 길러야 할 책무를 갖는다. 설득적 밀하기는 참여자의 사회적·개인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이때 ‘수용자’ 즉 ‘청중’은 ‘상상을 통해 구성한 가상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대면하는 존재’라는 점 때문에 담화 소통에서 보다 실제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또한 청중이 무책무취한 대상이 아니라, 그(들) 또한 사회적·개인적 정체성을 지닌 주체라는 점에서, 화자가 ‘청중’을 파악하고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화를 구성할 수 있는가는 설득 화법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언어 표현 행위가 근본적으로 목표 지향적 활동이지만 그중 설득 담화는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보다 부각되는 의사소통이다. 설

1 본 연구에서는 일 대 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설득 담화 양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에 개인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청자’ 대신 집단적 속성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용어인 ‘청중’을 주로 사용한다.

득적 말하기에서 화자는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효과를 제고하는 언어 사용자로 전제된다. 화자는 설득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전달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와 ‘어떻게 전달해야 할 것인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화자와 청중, 그들이 속한 맥락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는 필연적으로 끊임없는 ‘선택’ 행위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과정에 청중이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갖고,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국어과 교육과정 속에 여러 학년에 걸쳐 ‘독자 및 청자를 고려하는 표현’과 관련된 교육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통해 국어교육 분야에서 ‘청중 고려’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다.² 그러나 학습자들이 실제로 특정한 담화 목적 혹은 담화 장르에 적절한 그리고 효과적인 청중 고려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확신할 수는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등학생 화자들이 설득적 말하기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그들의 청중 고려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 2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듣기·말하기, 쓰기, 화법과 작문에 나타난 ‘청자(청중) 및 독자 고려’와 관련된 성취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교육과정상 ‘담화 수용자(독자, 청자(청중))’ 관련 성취기준

(2012 중학교 1-3 듣기·말하기)	(8) 목적과 상대에 따라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화를 나눈다.
(2012 중학교 1-3 쓰기)	(1)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정한다.
(2012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4) 정보를 수집·분류·체계화하여 청자나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다.
(2012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9) 청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언어적·빈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한다.
(2012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16) 설득하는 담화나 글의 구조와 메시지 조직의 원리를 이해하고 청자와 독자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2012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24) 독자나 글의 유형에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II. 이론적 논의

1. 청중 고려의 개념

화자의 ‘청중 고려’는 논리적으로 ① ‘청중의 특성으로부터 청중의 상을 구축하는(audience construction)’ 과정과 ② ‘청중에 적절하게 담화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엄격히 분리되는 과정은 아니나 청중 고려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후에 청중 고려의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조작적으로 분리하는 것임을 밝혀 둔다.

‘청중의 상을 구축한다는 것’은 청중을 인식하고, 청중의 특성을 분석하며, 그에 따라 자신이 대면하게 될 청중에 기대되는 속성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화자는 특정한 변인이나 특성을 중심으로, 청중의 실제적 면모와 이상적 면모를 종합하여 자신이 대면하게 될 청중을 구축해 간다. 이는 화자가 해당 담화의 ‘예상 청중’을 창조해 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³ 결국 화자가 청중의 상을 구축한다는 것은, 청중이 어떤 특성과 정체성을 가졌을 것인지를 규명하거나 예측하는 것이며, 그러한 특성과 정체성에 따라 청중이 담화에 기대하는 바를 읽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⁴

다음은 이렇게 화자가 구축한 청중에 따라 설득 담화의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설득 담화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목적하에 생성된

3 이는 작품에서 예상 독자를 필자 내면에서 만들어진 허구적(fictional) 존재로 간주하여 담화 생산과 창작 과정상의 주제, 성격, 내용 등을 결정한다고 보는 관점(Ong, 1975)과 상통한다(Ong의 논의에 대해 정희모, 2012 참조).

4 정혜승 · 서수현(2009: 217)은 중등학생 필자의 ‘독자 인식’의 양상을 고찰하는 연구에서, ‘필자가 자신의 글을 읽을 독자를 예측하여 그 모습(像)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자신이 떠 올린 독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에 대한 ‘앎’을 갖게 된다면, 이와 같은 앎의 과정을 거치는 필자는 독자를 인식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본고에서의 ‘청중의 상 구축’은 이 ‘독자 인식’의 과정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담화이고, 이때 무엇을 설득할 것인가를 정리하면 그것이 곧 화자의 ‘주장’이다. 설득 담화가 일방적 선언과 구분되는 것은 청중이 ‘주장’을 수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가적 요소들을 갖춘다는 점이다. 이때 주장과 부가적 요소들의 결합을 논증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설득 담화의 논증 구조를 단순화 하면 윌리엄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 윤영삼 역, 2012)에서 제시한 바처럼 ‘주장-이유-근거’로 볼 수 있다.⁵ 화자가 자신이 인식한 청중의 변인(특성)에 따라 ‘이유’를 선택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장① 이번 봄 소풍 장소로 로봇 박물관을 추천한다.

이유⑦ 많은 학생들이 소풍 장소로 로봇 박물관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유⑮ 학생들에게 과학 분야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장⑦를 드러내는 설득적 말하기를 하기 위해 화자가 잠정적으로 채택 가능한 이유(예: 이유 ⑦과 ⑮)들을 생성하고 그중 일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인가’만이 준거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때 ‘청중들에게 수용 가능한 혹은 청중들이 동의 가능한 이유인가’ 또한 중요한 준거로 작용한다. 중학교 학급회의 시간에 소풍 장소를 결정하는 안건에 대한 토의 상황일 때 이유 ⑦은 ⑮보다 청중들의 더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설득 담화를 들을 청중이 학부모 집단이라면,

5 그림 1. 윌리엄스와 콜럼의 논증 구조



나는 이러이러한 의문, 반대, 대안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러한 논증으로 대응한다.

이유(?)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때 ‘중학생’들과 ‘학부모 집단’ 간에는, 가장 단순하게는 인지적 이해 능력의 차이부터, 특정 박물관에 대한 선호의 차이(정의적 태도의 차이 혹은 기존 입장의 차이), 소통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해석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청중에 적절하게 담화를 구성하는 과정’의 실제적인 측면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자가 자신이 구축한 청중의상을 담화의 내용 생성 및 표현 등을 통해 ‘담화에 기재하는’ 과정이다. 화자가 구축한 청중의상을 기재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넓다. 설득 담화 구성이 결국 주장-이유-근거를 중심으로 하는 논증 구조의 구성을 핵심으로 한다고 하면, 청중의 상은 화자의 주장 선택, 주장의 강도 선택, 논증 구조에서 이유 및 근거의 선택과 조정, 설득 전략의 선택 등에 작용한다. 이뿐 아니라 표현의 측면에서는 특정한 함축을 가진 어휘 및 비유적 표현, 반복이나 강조 등을 통해 청중의 심리적 수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2. 설득적 말하기의 청중 변인

고전 수사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청중’ 관점에서 청중 분석(audience analysis)의 단계에서 파악해야 할 일반적인 요소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청중의 동기화(audience motivation), 청중의 인구통계학적 정보(audience demographics), 청중의 심리적 상태(audience's psychological profile)이다.⁶ 이런 세 가지 분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중 변인들은 수없이 많지만, 설득 담화를 구성하기 위해 화자가 청자에 대한

6 맥케로우 등(McKerrew *et al.*, 2003)에서는 청중 및 담화 상황에 대한 분석(5장)을 다루면서, 청중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와 청중의 심리적 정보를 파악하도록 요구한다. 재프(Jaffe, 2007)는 청중 분석(5장)을 다루면서, 청중 분석의 세 가지 과정으로 청중의 동기를 고려하고, 청중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분석하고, 청중의 심리적 프로파일(psychological profile)을 분석할 것을 제시한다.

모든 변인을 사전에 다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요인들을 담화에 의미 있게 활용하거나 반영하기도 어렵다.⁷

그러므로 설득 담화의 목적과 관련하여 청중의 특성을 유의미하게 파악하는 데 기여하는 변인, 동시에 청중의 설득 담화 이해나 담화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도출하여 청중 유형화를 위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설득 담화 효과에 관여하는 청중 변인에 대한 연구를 주로 참조하여 청중 변인을 탐색하였다.

이때 참고한 이론은 미국 예일대학의 호블랜드(Hovland)와 쉐리프(Shriff) 등으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판단 이론(Social Judgment Theory)과 페티와 카치오포(Petty & Cacioppo) 등으로부터 시작된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이다. 두 이론은 이전의 행동주의적 접근 시각이나 인지주의적 접근 시각의 한계 즉, 행동주의적 접근에서 제안하는 ‘강화’가 항상 설득 효과를 높이는 것은 아니며, 인지주의적 접근에서 말하는 ‘심리적인 일치의 동기’가 항상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태도 변화나 설득의 원리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김영석, 2008: 175)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들이다.⁸

7 인구통계학적 정보나 심리적 상태 또한 담화 구성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본고에서는 ‘설득’이라는 담화 목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청중 변인들에 대해 주로 다루고자 한다. 이는 국어교육에서 담화를 나누는 하나의 축으로 ‘담화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 현 상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8 본고에서 제시한 청중 변인 중 ‘기준 입장’은 ‘사회적 판단 이론’으로부터 도출한 변인이지만 ‘정교화 가능성 이론’에서 청중의 정보 처리 동기를 높이는 변인이기도 하다. ‘청중의 동기화’와 ‘사전지식’은 ‘정교화 가능성 이론’을 참조한 것이다. 정교화 가능성 이론은 기본적으로 수용 주체들이 동일한 설득 메시지를 다르게 처리하는 방식과 그에 판여하는 변인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정교화 가능성이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확률 혹은 가능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정교화 가능성 이론에서는 설득 담화가 처리되는 두 가지 경로로 중심경로(central route)와 주변경로(peripheral route)를 제시하는데 설득 담화를 처리하는 주체가 어느 경로로 담화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태도 변화 과정이 달라진다고 간주된다(Thorson, 1990; 이명천, 1999: 152). 페티와 카치오포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

1) 기존 입장

청중에 따른 설득 담화 구성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논제에 대한 청중의 기존 입장이다. 청중이 논제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혹은 그 가운데 위치하는 스펙트럼상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느냐에 대한 시착점 분석이 담화 구성에 영향을 준다.

설득하는 담화 논제에 대해 청중이 보일 수 있는 입장을 중심으로 청중을 구분하면, 반대하는 청중, 중도적 청중⁹, 지지하는 청중으로 나눌 수 있다 (김영석, 2008: 259 - 260). 반대하는 청중의 경우 화자가 전개하고자 하는 입장과 상반되는 측에 서 있는 경우이다. 중도적 청중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무의견 청중, 중립적 청중이다. 마지막은 설득자의 의견을 옹호하고 있는 청중들로, 이들은 설득 내용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서도 그 입장도 화자와 일치하는 경우이다.

2) 청중의 동기화

재프(Jaffe)는 청중의 동기를 고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기를 ‘청중들이 왜 모이는가’, ‘무엇이 그들을 유인하는가’, ‘무엇이 그들의 흥미를 유지하게 하는가’ 등에 대한 대답이라고 설명한다(Jaffe, 2007: 71).

홀링스워스(Hollingsworth, 1935)는 연설에서 청중의 특성에 따라 청중을 구분하고 청중의 유형에 따라 담화의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⁰ 그는 청중을 무관심 청중(Pedestrian Audience), 수동

설득 메시지 처리의 정교화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동기’와 ‘처리 능력’을 제시한 바 있다.

9 김영석(2008)에서는 피설득자가 설득자와 메시지 주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에 따라 다른 설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피설득자를 분류하였고, 본고에서는 이중 ‘메시지 주제’에 대한 분류를 차용하되 일부 용어는 수정하여 사용한다. 김영석이 ‘어떠한 의견도 없는 집단’을 ‘중도적 청중’으로 변환하며, ‘충분한 정보가 없는 집단, 중립적 집단, 무감각한 집단’의 분류 유형을, 본고에서는 ‘무감각 집단’을 제외하고 ‘무입장 집단, 중립적 집단’으로 분류한다.

10 실제로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으나 여섯 번째 유형 ‘부재하는 청중(absent audience)’은

적 청중(Passive Audience), 선별적 청중(Selected Audience), 협조적 청중(Concerted Audience), 조직적 청중(Organized Audience), 부재하는 청중(absent audience)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청중 유형화는 일종의 동기화에 따른 구분이라 할 수 있는데, 청중의 담화 참여 자발성,¹¹ 관심, 흥미, 담화 목표에 대한 동의 수준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화는 해당 청중의 담화 참여 태도 및 수용에 영향을 준다.

동기화는 기본적으로 그 담화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담화에 몰입할 수 있는 기본적 성향과 일시적 성향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는 설득 논제에 대한 청중의 관여도와 직결된다. 관여도는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청중 스스로가 중요성을 느끼며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정도로서(정재선, 2012: 22-23), 설득 메시지 처리 과정에서 개인의 관심 정도를 반영하며 메시지 처리에 대한 동기 부여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Petty & Cacioppo, 1979; 1986)이다. 관여도는 실험 상황보다 실제 상황(real world)에서 이루어지는 설득의 기제와 효과를 더 잘 설명하는(Hovland, 1959) 변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여러 설득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청중들이 어떤 설득 주제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연루된 정도와 이해관계에 따라 그 주제에 대한 설득에 다른 평가를 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떤 단체에 속했는지에 따라 그러한 직업이나 단체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3) 청중의 사전지식

다음은 청중의 인지적 자원(source)과 관련된 사전지식(prior knowledge)이다. 청자가 쟁점과 관련된 사전지식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그

화자로부터 청중이 분리되는 라디오나 전화 같은 상황에 해당하기에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11 해당 담화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참여했느냐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담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저항하는 양상이 달라진다. 이는 기존 입장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는데, 청자가 쟁점과 관련된 사전지식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그들이 자신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담화에 노출될 경우 그에 반박하는 경향이 커지고, 자신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담화에 노출될 경우 찬성하는 경향이 커진다(Petty & Cacciopo, 1986).

담화 주제에 대한 청중의 사전지식 정도에 따라 화자의 담화 내용 구성이 달라지게 된다. 설득 효과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주제 관련 지식(정보)의 양(amount of issue-relevant knowledge)이 수용자의 태도 변화를 촉발하는 주요 변수라고 본다(Wood, 1982). 사전지식은 담화 주제와 관련된 사고를 더 많이 촉발하고, 반대 논거(counterarguments)를 풍부하게 생성할 수 있게 한다(O'Keefe, 1990: 102). 또한 사전지식에 바탕을 두게 되면 그와 관련된 논거(메시지)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게 하고, 지엽적인 단서들에 덜 의존하게 한다(Wood, Rhodes & Biek, 1995; Petty, 39쪽 재인용). 뿐만 아니라 사전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일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반대측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논거나 쟁점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고, 찬성측 사고방식을 더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Johnson, Lin, Symons, Campbell & Ekstein, 1995; Petty & Wegener, 1998 : 39).

III. 연구 방법 및 연구 자료

본고에서는 화법교육에서 생산되는 학습자들의 설득 담화에서 청중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청중의 특성 및 정체성을 해석하고 그러한 해석에 따라 청중을 고려하는 담화 구성은 모든 발달 수준의 표현자에게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특정한 인지적 발달에 이르렀을 때에만 가능한 능력이기도 하다(Carvalho, 2002). 사회인지적 발달과 청

중 고려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Hays *et al.*, 1992) 등을 참고하여, 청중의 요구와 수준에 맞게 설득 담화를 구성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고등학교 학습자라 판단하였다. 연구 자료를 수집하던 2012년 당시 국어과 공통 교육과정이 1-10학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었기에 이를 모두 이수한 11학년이 연구 참여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료 수집은 S고등학교에서 이루어졌는데, S고등학교는 서울 소재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이다.¹² S고등학교의 2012년 전국학업성취도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과 유사하고, 국어 교과 성취 수준 등급별 비율은 기초학력미달 4.7%, 기초학력 23.2% 보통학력이상 72.1%이다. 기초학력미달과 기초학력 수준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자립형사립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과 일반 고등학교 간 성취도가 현격히 차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¹³ S고등학교의 성취도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평균적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형적인 고등학생 학습자들의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 중, 학업 성취도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등 여러 측면에서 평균적인 학교를 선정하였다. 다만 공적 말하기의 경우 밀하기 불안(speaking anxiety)으로 인해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여 공교육을 통해 화법 수업을 받음으로써 기본적인 발표 능력과 상호 평가 능력을 갖춘 학습자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토론 교육에 대한 자발적 관심으로 심화반 토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말하기 수행을 관찰하였다. 해당 학습자들의 토론 수행 경험이 바탕이 되었기에 말하기 불안으로 인해 설득적 말하기 수행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

-
- 12 성별이 화자의 청중 고려 양상이나 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될 수 있는바 본고의 연구 대상군의 성별을 부제목에 기재하였고, 성별이 청중 고려에 미치는 양상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별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13 학교알리미 짐계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서울 지역 고2 학습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평균 비율은 일반고의 경우 국어 4.5%, 수학 19.3%, 영어 11.5%인데 반해, 자사고는 국어 1.3%, 수학 1.3%, 영어 0.85%로 차이가 크다.

지 못하는 요인을 통제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공적 담화 상황에서 5분 내외로 독화 형식의 설득적 말하기를 수행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담당 국어 교사로부터 안내받았다.¹⁴ 사전 준비가 필요한 발표 장르이기에 학습자들이 미리 발표문을 작성하였고, 발표문 작성 중 혹은 작성 직후에 설득 담화 구성을 위해 어떤 사고 과정과 고민을 거쳤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설득 담화 보고서].¹⁵ 발표 수행이 끝난 후에 자기 평가를 하게 하였는데 실제 발표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자신의 설득적 말하기의 장단점, 청중의 반응이나 청중에게 자신이 미친 영향력을 간단히 기술하도록 하였다[설득 담화에 대한 자기 평가]. 학습자들은 평소에 수업을 받는 교실에서 설득적 말하기(public speech)를 수행하였고, 실제 청중으로는 동료 학습자들과 담당 교사, 연구자가 동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말하기 수행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하고 전사하였다[설득 담화 전사]. 발표 직후 화자-청중 간 상호질의가 이루어지도록 절차화하여 화자가 ‘청중’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그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을 조성하였다[청중과의 질의 응답].¹⁶

-
- 14 연구자와 교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세 가지 주제에는 ‘무상 보육’, ‘금연 정책’, ‘대입에서의 내신 반영’이었고, 세 가지 주제에 중 택일하거나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유 논제를 선정한 학습자들은 모두 이전에 해당 학급에서 토론 논제로 다루었던 것 중 하나를 선정하였다.
- 15 학습자들이 설득 담화 발표문을 구성하면서 생각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지만, 항목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학습자들이 ‘무엇’을 적어야 할지에 대해 막막함을 토로한 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항목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설득 담화의 주제 선정 이유, 설득 담화의 구성 과정상에서 어려웠던 점, 참고한 자료의 내용과 출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고른 까닭, 설득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나 방법, 청중을 의식(고려)하여 선택한 내용이나 표현 등>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연구자가 제시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기술했다.
- 16 이처럼 담화 상황에서 화자가 ‘청중’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절차화 하였지만, 연구자가 명시적으로 ‘청중을 인식하라’, ‘청중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주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설득적 말하기 담화를 구성할 때 청중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거나 그러한 인식을 담화에 반영하는지를 관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 수집과 과제 상황 제시는 설득 화법의 구체적 생산자로 선택한 고등학생 화자들의 설득 담화 구성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의 청중 인식, 청중 인식에 따른 의도와 계획이 설득 담화에 기재되는 양상을 분석하려면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자료 수집 시기 및 자료의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자료 수집 시기 및 내용

대상	수집 기간	자료번호	자료 내용(기호)
S 고등학생 2학년 18명	2012년 10월~11월	S-01~18	설득 담화 보고서[보고]
			청중 인식에 대한 설문지(설문)
			설득 담화(동영상, 전사본)(전사)
			자기 평가[자평]
			청중과의 질의응답(질응)

IV. 고등학생 화자들의 청중 고려 양상

1. 청중의 상 구축

학습자들이 설득 담화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지적 문제 해결을 거치는지를 살피기 위해 설득 담화 구성 직후 작성해야 할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자신이 설득적 말하기를 준비할 때 어떤 청중을 상정하였는가’와 함께 ‘그러한 청중들이 가진 특성’을 기술하게 하였다. 본 절에서는 학습자들의 설득 담화 보고서[보고] 및 자기 평가[자평]의 자료를 중심으로 고등학생 화자들이 인식하는 청중 변인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S-01, S-05의 설득 담화 보고서에 드러난 청중 변인들이다.

(가) 'SNS는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가'란 주제는 독서 토론 수업에서 진행한 첫 CEDA토론 주제였습니다. 첫 토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열심히 토론준비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토론에서 다룬 주제였지만 당시 ⑦ 상대 토론자들이나 청중들에게 제가 하고픈 말을 전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아쉬움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쉬움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중략) ⑧ 청중은 같이 토론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⑨ SNS를 많이 이용하는 10대이기도 하였기에 제가 설정한 주제와 연관성이 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S-01[보고]〉

(나) 네이버에 '무상보육'을 검색했더니 관련 정책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링크되어 있길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서 정책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해봤다. 그 정책에 대해 요약하여 발표에 포함시켰는데, ⑩ 이유는 아이들이 이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⑪ 청중은 학교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다. ⑫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무상 보육은 아직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정책임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중략) 나의 설득 담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 70%라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이었는데 아주 평범한 맞벌이 부부가 혜택을 못 보는 제도는 불합리하다.¹⁷

〈S-05[보고]〉

(가)는 'SNS가 사회에 유용하다'라는 주장을 펼친 S-01의 담화 보고서이다. S-01은 이전 CEDA 토론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개진하지 못한 아쉬움을 담아 좀더 타당한 토론의 입론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담화를 준비하였다. ⑦에서 확인할 수 있듯 '상대 토론자 및 청중'을 의식하면서 담화를 준비하였다.

17 이 화자는 청중들 또한 사회에 나가면 대부분 평범한 맞벌이 부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금은 청중들의 관여도가 낮은 논제이지만 미래에는 청중들의 삶에 중요한 문제임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화를 구성하였고, 자신이 설득해야 할 청중의 성격을 ‘나와 입장이 반대되는 사람들’로 부여한다. 또 청중들이 SNS를 사용하거나 그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논제라는(⑤) 점에서 청중이 어느 정도 동기화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S-05의 진술이며, S-05는 무상 보육 정책에 대한 사전지식 및 동기화 수준이 낮은 청중(⑥, ⑦)들을 상정하며 담화를 구성한 바 있다.

설득적 밀하기 보고서에 기술된 ‘청중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가, 어떤 특성을 가졌다고 생각했는가’에 대한 내용에서, 고등학생 화자들이 청중의상을 구축하는 데 동원한 청중 변인과 그 빈도이다.¹⁸

동기화: 11명	기존 입장: 10명,
사회적 정체성: 9명	사전지식: 7명
인지적 수준: 5명	화자-청중 관계: 3명

학습자들은 청중의 상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청중의 변인(특성)을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까지 떠올렸는데, 그중 가장 빈번하게 인식되는 청중 변인은 ‘청중의 동기화’, ‘기존 입장’, ‘사회적 정체성’이었다.

논제 관련한 청중의 기존 입장과 논제 및 담화에 대한 청중의 동기화는

18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세 가지 청중 변인(기존 입장, 동기화, 사전지식)은 설득하는 담화의 이해에 좀더 별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제시한 것이지만, 청중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본고에서는 ‘연령’을 ‘인지적 수준’으로 해석하였는데, 학습자들이 연령과 관련된 특성으로 ‘~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등의 인지적 이해 수준을 지칭하는 서술을 병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0대’와 같이 구체적 연령대를 기술한 경우 ‘인지적 수준’으로, ‘학생, 청소년’과 같이 그 사회적 역할을 기술한 경우 ‘사회적 정체성’으로 분류하였으나, 해당 화자가 ‘청중의 특성’을 기술하는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정도성’의 개념을 포함한다. 각각의 입장과 동기화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기보다 극성(polarization)을 가졌다고 본다면, 스펙트럼상의 양극단에서 그 정도가 가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생 화자들이 예상한 ‘청중의 동기화’는 ‘입시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 ‘대입이 중요한 학생’, ‘내년에 수능을 쳐야 하는 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두어서 대입에 민감한 사람’ 등의 양상으로, ‘기존 입장’은 대체로 ‘~에 반대하는 사람’, ‘~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는 사람들’, ‘나랑 상대측에 있는 사람’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청중 변인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은 고등학생 화자들이 청중의 주요 특성으로 ‘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등과 같은 사회적 지위나 역할 등을 언급 한 경우이다. 이 경우 화자들은 ‘청중’을 상정하면서 설득적 말하기를 수행하게 될 교실 상황을 떠올리고, 그들이 대면하게 될 동료 학습자로서의 속성을 청중의 특성으로 도출하였다고 보고한다.

고등학생 화자들이 복수의 청중 변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경우, [기존 입장×동기화]를 중심으로 청중을 유형화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논제와 관련된 청중의 입장을 ‘반대, 무입장, 지지’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관여도를 ‘높고, 낮음’의 두 가지로 분류하면 3×2 의 형태가 되어 <표 3>과 같이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대학에서의 내신 성적 강화에 찬성하는 화자가 상정 할 수 있는 청중의 특성 중 몇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기존 입장’과 ‘동기화’에 따른 청중 유형

		동기화	
		낮음	높음
기존 입장	반대하는	(가)	(나)
	무입장	(다)	(라)
	지지하는	(마)	(바)

(나)유형: 자신 혹은 가까운 사람이 대학 입시를 곧 치를 예정이거나 대학 입시에 대한 관심이 많고(동기화 높음), 내신 성적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해 거부감을

보이며 이에 반대한다(반대하는 입장).

(마) 유형: 자신 혹은 가까운 사람이 대학 입시를 치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입시 정책 등에 대한 관심이 적고(동기화 낮음), 내신 성적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내신 성적 강화를 찬성한다(지지하는 입장).

[기준 입장×동기화]의 통합뿐 아니라 여기에 사전지식 변인이 통합되는 [기준 입장×동기화×사전지식]의 유형도 자주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 (나) 유형처럼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의 경우 사전지식이 높을 것으로, (다), (라) 유형처럼 무입장인 경우 사전지식 자체가 부족하고 해당 논제에 대한 관심도 현저히 낮을 것으로 기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다음은 고등학생 화자들이 구축한 청중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¹⁹ (가)~(바)의 기호는 <표 3>과 일치하고, (사)는 특정한 청중 유형을 상정하지 않고 다양한 특성의 청중이 혼재되어 있다고 가정한 경우이다.

표 4. 고등학생 화자가 인식한 청중 유형

학습자	청중 유형	학습자	청중 유형	학습자	청중 유형
S-01	(나)	S-07	(가)	S-13	(라)
S-02	(사)	S-08	(다)	S-14	(나)
S-03	(사)	S-09	(다)	S-15	(사)

19 학습자들이 구성한 담화 보고서에서는 '청중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양상'이 두루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화자들이 인식하는 청중 유형에 대한 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득적 말하기에서 ① 다양한 성격을 가진 청중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경우'와 ② 여러 청중이 혼재해 있지만 발표를 위해 주로 특정 유형의 청중을 고려한 경우', ③ 청중이 하나의 특정한(동일한) 특성을 가졌다고 보고 그러한 청중을 고려한 경우'로 나누었고, ①의 경우 (사)로 코딩하고, ②와 ③의 경우를 (가)~(바) 중 하나로 코딩하였다. 이러한 청중 유형이 다소 복잡하며 이러한 유형을 교육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에게 단일 '청중 변인'만을 고려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청중 변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면 이러한 유형화가 '설득 담화의 청중 고려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S-04	(사)	S-10	(나)	S-16	(나)
S-05	(다)	S-11	(나)	S-17	(라)
S-06	(다)	S-12	(다)	S-18	(다)
(가):1명, (나):5명, (다):6명, (라):2명, (사):4명					

<표 4>에서 보듯 고등학생 화자들은 [무입장×동기화 낮음]의 속성을 가진 예상 청중(다)을 상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반대하는×동기화 높음]의 속성을 가진 예상 청중(나), 여러 유형의 청중이 혼재한다고 예상하는 경우(사)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화자들이 선택한 논제와 청중 유형과의 일정한 관련성도 드러났는데, ‘무상 보육’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학습자들의 경우(S-05, S-12, S-18) 논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뚜렷한 입장도 견지하지 않은 청중을, ‘대학 입시에서의 내신’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학습자들의 경우(S-10, S-14, S-16) 논제에 대해 관심도가 높고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청중을 상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2. 구축된 청중 상에 따른 설득 담화 실현²⁰

본 절에서는 화자가 자신이 구축한 청중의 상을 설득 담화에 어떻게 기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청중 인식에 대한 설문지[설문], 학습자들의 설득 담화 보고서[보고] 및 자기 평가[자평]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먼저 청중 고려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이다. 학습자들은 ‘설득적 말하기에서 청중을 의식하고 /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다. 18명 중 10명이 ‘중요하다’, 5명이 ‘매우 중요하다’, 3명이 ‘보통이

20 ‘청중의 특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설득적 말하기 담화’에 남긴 자취 중 ‘여러분, 우리’와 같이 특정한 호칭이나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표현상의 고려를 제외하고, 담화의 내용 선택 및 조직 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설득 담화 실현’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다'라고 응답했다[설문]. 학습자들이 설득적 말하기에서 청중 인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는 작문에서 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정혜승·서수현, 2009)와 유사하다.²¹ 본고의 연구 결과도 대다수의 고등학생 학습자들이 화자로서 설득적 말하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중 고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청중 고려 방법과 청중 고려 능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청중을 고려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라는 항목에 대해 ‘그렇지 못하다’(9명), ‘보통이다’(6명), ‘그렇다’(3명)의 응답을 보였고, ‘청중을 고려하여 설득적 말하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항목에 대해 ‘그렇지 못하다’(8명), ‘보통이다’(8명), ‘그렇다’(2명)의 응답을 보였다[설문]. 청중 고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과 대조를 이룬다.

이제부터 청중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자신이 청중을 고려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며, 담화를 통해 청중 고려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다고 보고한 화자들의 설득적 말하기에 나타난 ‘청중 고려’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청중의 특성을 설득적 말하기의 내용 구성 및 표현에 반영한 양상은 매우 단순했다. 화자로서 자신이 고려한 청중의 특성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기술했던 것에 비해(1절) 담화에 실제로 반영했다고 보고하는 청중의 특성은 그 숫자가 매우 적었다. 예를 들어 기존 입장이 중요한 청중 특성으로 언급한 학습자가 많았으나, 담화를 구성할 때 그러한 특성이 유의미하게 작용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화자들이 구축한 청중 유형 중 빈도수가 많은 두 유형((다)-6명, (나)-5명)을 선정하고 그러한 청중 유형이 반영된 설득 담화 구성 양상을 분석하였다.²² 이러한 분석은 학습자들의 ‘청중 고려 방법’의 효율성을 평가

21 정혜승·서수현(2009)에서는 8학년과 10학년 학습자 251명을 대상으로 ‘글을 쓸 때 독자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물었고 이 중 42.2%가 ‘매우 중요하다’, 39%가 ‘약간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바 있다.

22 본 절의 분석에서는, 학습자들의 보고서나 자기 평가 등을 통해 청중 고려 ‘의도’가 드러

하여 최적의 방법을 제시하려는 목적보다는, 현재 고등학생 학습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청중 고려 방법’의 목록을 살펴보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다.

1) 동기화 낮고 무입장 청중((다) 유형)에 대한 고려

동기화 낮고 무입장인 청중에 대해 화자들은 ‘동기화가 낮기 때문에 입장은 정할 수 없다’는 인과적 해석을 내렸다. 해당 논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을 핵심적 ‘청중 특성’으로 파악한 화자가 ‘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사용한 전략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과 해당 논제가 ‘청중의 삶에 중요한 문제임을 부각하는 것’이었다.²³

(1) 관련 정보의 양적 확장

- 저의 주장을 듣는 화자가 우선 무상보육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일부뿐만 알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말하였습니다. 무상 보육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제 생각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담화의 처음, 중간, 끝에 어떤 내용을 제시할지에 대해 저는 우선 현대 한국사회의 상황으로 인해 무상보육이 도입되었다고 무상보육의 취지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되기 전의 무상보육 안을 말하였고, 이에 대해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는 개정된 무상보육을 소개하고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에서는 제가 생각한 무상보육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S-05[자평]>

나고 실제로 그러한 의도가 담화에 기재된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학습자들의 보고서에 담화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고민했던 내용, 선택했던 전략 및 방법을 적도록 하는 항목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청중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 및 표현을 선택했는가’를 묻지는 않았다. 따라서 IV장 1절에서의 ‘자신이 생각한 청중의 특성’을 진술하였으나 ‘구축된 청중상을 반영하여 청중을 고려한 방법’을 진술하지 않은 학습자들(4명)이 있다.

23 (다) 유형 청중을 타깃으로 할 때 화자들이 사용한 ‘관련 정보의 양적 확장’은 매우 일반적인 전략이기에 특정 청중 변인과의 관련성이 낮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화자로서 ‘청중의 상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가’와 ‘그에 따른 담화 구성 양상 및 전략’을 ‘연결짓고’ 있는 지점에 주목한 것임을 밝혀둔다.

S-05의 경우 (다) 유형의 청중을 상정하고 담화를 구성하였다. S-05의 경우 화자 스스로 ‘무상 보육’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포털 사이트의 기사, 블로그 및 카페에서 네티즌들이 작성한 정책에 대한 평가 발언, 보건복지부 사이트의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자신의 입장을 텁색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정리하는 데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S-05[보고]). 화자는 청중을 ‘자신이 정보를 획득하기 전의 상태’와 유사할 것이라 간주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청중의 특성은 ‘입장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전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무상 보육 정책’의 취지와 실행을 둘러싼 논쟁, 정책의 문제점 등을 자세하기 전달하기 위한 담화 구성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S-05는 기본적인 내용 구조를 ‘문제-해결’로 설정하였는데, ①예산 확보, ②여론의 동향, ③제도 시행을 위한 여건, ④제도 내용의 체계성, ⑤제도의 실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논의의 범위가 넓었던 만큼 ‘문제 제기에 따른 해결책 제시’까지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전략) 이번 달 폐기 위기를 겪었던 무상보육 정책은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는 영세에서 오세까지 보육과 교육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만 0~2세와 5세 아이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고 만 3~4세의 경우 소득 하위 70%가 무상으로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일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한해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세 10만 원의 양육 보조금을 지급한다입니다

그러나 곁보기에는 이상적인 이 무상보육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이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한 제도였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가정 양육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차상위 계층에 한해 양육비를 돈으로 받는다고 하지만 그 대상자는 적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많이 제대로 받기 위해 맞벌이 부부 전업 주부 할 것 없이 어린이집에

몰려듭니다 시설과 인력에 비해 이용자는 넘쳐서 어린이집 대기자 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국공립 보육 시설의 경우 대기자 수가 천 명이 넘고 공급 대비 수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비교적 이용 시간이 짧은 전업주부의 아이를 선호하고 최근 시간이 일정치 않은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가장 필요다고 볼 수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해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 예상을 훨씬 웃도는 78만 명이 어린이집에 몰리자 각 지자체의 예산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육 예산 증가분의 일부만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안으로 지자체와의 갈등이 있었고 무상보육은 한때 중단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당초 국회가 신규 정책을 도입하면서 늘어날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예산 부족 대란을 빚은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정책 시행 7개월만에 사실상 무상 보육을 철회하고 양육보조금 차등 지원 방안을 포함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략)

〈S-05[전사]〉

이때 S-05가 논의의 범위를 ‘무상 보육 정책’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로 확장한 데에는 나름의 예상 청중에 대한 인식이 자리한다. 이때 화자는 사회 문제로서 특정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여러 문제들을 빠짐없이 언급함으로써 그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 청중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한 방법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적 화제 전개는 설득 담화에서 주요하게 전달되어야 할 ‘핵심 주장’을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지만, 청중이 가진 사전정보가 부족할 때 ‘청중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화자들은 정보의 양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

(2) 청중의 정체성과 이익에 호소하기

청중은 제가 조사하다 보니 담배 회사의 주 타깃이 청소년이란 것을 알게 된 뒤 이 말을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고 지금은 별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생각하지만 미래의 흡연자들일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설정했습니다. <S-09[보고]>

S-09는 청중을 청소년이라고 한정했는데 이는 단순히 연령상의 특성만이 아니라 ‘현재 흡연을 가장 많이 하는 계층이 아니고(관여도가 적지만) 소비의 주체도 아니라서’ 대학 입시 등에 비해 청소년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담배 회사에서 가장 주요하게 공략하는 잠재적 소비자 타깃이 청소년이라는 것 즉 ‘잠재적 담배 소비자로서의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중심으로 청중의 상을 구축하였다. 그에 따라 설득적 말하기를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청소년’으로서의 화자 그리고 ‘청소년’으로서의 청중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입니다 (중략) 일단 첫째 광고 제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담배 광고는 비흡연자와 금연자에게 흡연을 유도 흡연자에게 흡연을 더 늘리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담배 사업 제 25조에는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⑦ 담배 회사 광고의 주 타깃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대상은 바로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⑧ 제가 청소년인 입장에서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mbc 스페셜 담배 편의점에서 길을 묻다 편에선 미국의 사례는 미국의 사례에선 ⑨ 담배 회사는 늘 자신들의 주 고객은 성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담배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배치하게 하였고 청소년들 눈높이에 담배를 진열해 주면 담배 회사에서 소매상에게 매달 100달러를 지급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비단 외국의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⑩지금 집 바로 앞 편의점을 가더라도 카운터에는 담배 광고가 수두룩합니다 ⑪이렇게 쉽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노출하는 이유는 담배업계에서는 19세까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면 고객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구매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고자 더 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광고가 그 욕구를 더 자극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편의점 광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⑫정부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담배 광고를 일반 소매점에서는 일체 금지하고 담배에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경고그림과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없도록 비싼 가격을 설정해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략) <S-09[전사]>

S-09의 담화에서는 우리나라 금연 정책 중 광고 제한과 금연 구역 확대에 초점을 두어 담화 분량상 비중을 차지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때 여러 금연 정책 중 ‘광고 제한’을 선택한 것부터 이것이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을 줄 만한 금연 정책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S-09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그들의 행동반경 내에 담배에 대한 긍정적 자극을 없애야 한다’는 전달 의도를 미국의 사례를 근거(⑦, ⑧)로 들어 한국 사회에도 적용(⑨)된다는 것을 보이고, 담배 광고나 진열 등 담배에 노출되는 것이 흡연 행위로 이어진다는 이유(⑩)를 내세워 담배 광고 제한 및 강력한 금연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⑪)한다.²⁴

청소년을 담배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담배 광고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첫 번째 하위 주장에는 ‘흡연’을 금기의 대상 혹은 중독의 대

24 ⑩에서 담배 광고나 홍보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청소년이 경제적 취약점을 고려할 때 담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담배 가격 인상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해당 단위화제의 응집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S-09는 이를 ‘청소년과 담배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생성하였다.

상으로 간주하는 관점이 자리해 있다. 담배 광고의 주된 타깃 층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청중들에게 담배 회사의 영업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담배 광고에 노출되다보면 잠재적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으로서의 화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 상태를 표출하며(㉢) 청중과의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전략이 잘 어우러졌다.

2) 동기화 높고 반대하는 청중((나) 유형)에 대한 고려

동기화가 높고 반대하는 청중은 해당 논제를 둘러싼 이슈 및 정보를 숙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화자들이 취하는 전략은 ‘예상 반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공략’이다. 이는 설득에서 청중의 태도의 변용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는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중이 가진 입장 및 사전지식 등에 비추어 화자가 청중을 설득하는 데 있어 잠재적 결림돌을 점검하는 것이며²⁵ 동시에 해당 논제에 대한 청중의 비판적 사고 능력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학습자들 중 청중들의 정체성을 ‘(토론에서처럼)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 규명하는 경우²⁶ 설득 담화 내에 ‘예상 반론에 대한 고려’를 철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S고등학교 학습자의 말하기에서 예상 반론을 요약적으로 언급하거나 예상 반론에 대한 재반박을 포함한 경우는 7명이었는데, 그중 [반대하는 입장×동기화 높음]의 특성을 가진 (나)유형의 청중

25 클락(Clark, 1996, 김지홍 역, 2009)은 의사소통을 협력 행위의 하나로 간주할 때 그러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심층 원리를 설명한다. 10장에서는 의사소통을 상거래의 틀로 분석하면서, 의사소통 참여자 간에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를 제시한다. 이때 협력에 응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잠재적 결림돌을 예상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상황을 열개지어주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26 S 고등학교 학습자들은 2012년 1학기 동안 CEDA 및 원탁 토론 형식의 토론에 참여한바 있고 이런 경험 덕분에 토론 담화의 장르적 속성상 상대측의 교차 조사 질문이나 반박을 예상하고 그에 답변하는 데 익숙하였다.

을 겨냥한 학습자는 4명이다.

‘예상 반론에 대한 고려’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ㄱ) 화자가 청중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예상 반론을 미리 언급함으로써 그에 대해 ‘화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다소 소극적인 양상, (ㄴ) 청중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예상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포함하면서 논리적 우위를 입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입에서의 고교 내신 반영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할 1조 ○○○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가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자연스레 매 학교 시험 성적이 곧장 합격 불합격을 좌우우지할 만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⑦ 대입에서의 고교 내신 반영이 전국의 고등학교 수준이 모두 달라 학교 내신을 동등한 잣대로 볼 수 있는지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 건지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추세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내신 즉 고등학교에서 학교 성적은 1학년 2번 2학년 2번 3학년 2번 이렇게 총 6번 정기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을 평가하여 1에서 9등급까지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은 단순히 시험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 과목에도 수행 평가가 있고 영어·수학 과목에도 시험 외에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있기에 단지 학교 시험만으로 학생들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 내신 성적이야말로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대입 수능보다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번 시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수능 시험보다 총 6번의 결과를 3년에 걸쳐 평가하는 학교 성적이야말로 이 학생이 학교생활 동안 얼마나 학교 수업에 충실했는지 성적 상승 추이는 어 떠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학교 시험은 각 학교의 선생님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학생의 수업 태도와 성실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⑦ 물론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교등학교 등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 아무리 열심히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어떤 대학 어떤 전형이라도 오로지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지는 않고 오히려 학생부 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에서는 개인별 내신차를 크게 두지 않기에 이러한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하략) <S-10[전사]>

대학 입시에서 내신 반영이 필요하다거나 현재의 내신 반영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 S-10의 담화에서 반대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예상 반론²⁷을 고려하는 양상을 ⑦과 ⑧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⑦에서는 대입에서 내신 비중을 확대하자고 할 때 제기되는 대표적인 예상 반론인 ‘내신은 각 단위 학교의 학습자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것이며 각 표본 집단의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다’는 명제를 화자가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재반박하기보다, 화자가 그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를 상쇄할 만한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의 내신 비중 유지 및 확대를 지지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⑧에서는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전체 학습자 모두가 성취도가 상 수준에 해당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실함이 성적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예상 반론]에 대해 특수 목적 고등학교 학생은 소수이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내신을 위주로 하는 전형 외에 다양한 전형들에서 유리할 수 있음을 들어 [예상 반론]을 [재반박]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였다.

27 대학 입시에서 내신을 논의하는 담화를 둘러싸고 S고등학교 상호 질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내신을 산출하는 방식(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 내신이 강화됨에 따르는 순기능과 역기능, 내신 평가의 타당도이다. 교육 평가에서 타당도(validity)란 검사 또는 측정 도구가 본래 측정하고자 하였던 것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대학 입시에서의 내신 반영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은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재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내신은 학교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 보는 관점과 내신은 여러 교과에 대한 일시적인 암기 능력만을 의미한다는 관점이 대립하였다.

‘예상 반론에 대한 철저한 고려’ 외에 (나) 유형 청중 구축에 따른 담화 구성 방법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최대한 많이 찾는 것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을 고르는 것)과 근거 유형 중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믿을 만한 통계)과 최신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 등이었다. 이를 통해 해당 논제와 관련된 사전지식이 충분하고, 쟁점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청중들이라 해도 ‘양적으로’ 많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그들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는 학습자들의 추론을 읽을 수 있다. 또한 통계 자료나 최신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화자의 신뢰도 및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판단이 작용한다.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청중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내용에 대한 신뢰도 및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최신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입증과 반박이 계속되는 학문 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는 의견이나 사실을 찾아내 청중들의 예상 반론을 차단하면서도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려는 시도라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화자가 청중의 상을 구축하고 그에 적절하게 담화를 구성한다는 것은 ‘언어’를 통해 ‘전달’만이 아니라 ‘소통’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설득적 말하기를 준비하면서 화자가 청중을 떠올리고 그에 적합한 내용과 표현을 선택하려는 시도는 곧 청중을 중요한 의미 구성의 주체로 상정하고, 화자의 의미 구성 과정에 청중을 참여시키는 시도인 것이다.

연구 대상 학습자들은 대부분 설득적 말하기를 준비하고 전달하면서 물리적 실체로서의 ‘청중’을 의식하고 있었고, 발표를 구성한 직후 자신이 상한 청중을 떠올리고 그 특성을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상

정한 ‘청중’의 특성을 의식하여 담화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자신이 청중을 고려하여 설득 담화를 구성한 방법이나 전략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양상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풍부하지 않았다.

S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고등학생 화자들의 청중고려에 대해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학습자들의 ‘청중 고려’를 구성하는 두 가지 과정 중 ‘청중의 상을 구축하는 과정’과 ‘청중 상에 적합한 담화 구성 및 표현’ 간의 괴리이다. ‘청중의 상 구축’만으로 효과적인 청중 고려가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화자의 ‘청중 분석 및 해석’과 ‘그를 바탕으로 한 담화 구성’간의 연계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습자들이 자신들이 상정한 청중의 특성으로 언급한 것 중 많은 부분이 설득 담화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양상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설득적 말하기 담화를 계획하거나 구성하는 ‘중’에 떠올린 ‘청중의 특성’에 적절하게 담화를 구성하는 ‘방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청중을 의식하고/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할 때 상정한 ‘청중’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도 관여한다. 학습자들에게 ‘독자나 청자(청중)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당위적 명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때 ‘독자나 청자’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존재로 치환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마지막은 ‘청중 고려’가 설득 담화 구성과 소통에 있어 보다 고차원적인 수준을 가진 화자들에 의해 실현되는 전략일 수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생 화자들에게는 특정한 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하나의 담화를 완결하는 것 자체가 인지적 부담을 초래하기에, 청중에 적합한 담화 구성 및 표현‘까지’ 실현할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시사점은, 학습자들은 청중에 대해 하나의 변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청중의 상을 구축한다는 특성이다. 본고의 자료에서 고등학생들은 [기준 입장×동기화]에 따른 유형 중 [무입장×동

기화 낮음]과 [반대 입장×동기화 높음]에 대한 인식이 빈번하게 나타났고, 그 외에도 동기화와 사전지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화자가 청중의 여러 특성을 복합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으로부터 청중을 고려하는 설득 담화 교육 및 연구의 설계 방향을 두 가지 제시할 수 있다. 하 나는 설득적 밀하기 교육에서 ‘청중 변인’의 특성 각각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과 함께 여러 청중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다루기도 해야 한다. 실제로 화자들이 대면하게 되는 청중은 ‘기준 입장’이나 ‘사전지식’과 같은 단일 변인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 청중 변인들을 복합적으로 매개하는 존재라는 점에서도 학습자들이 청중 변인을 통합적으로 해석·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의 숫자가 크지 않은 본고의 연구 결과를 고등학생 화자가 인식하는 청중 변인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 참여자 표본을 확대하여 고등학생 화자들에게 ‘고빈도로’ 인식되는 ‘청중 변인’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 화자들에게 ‘청중’이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그러한 청중의 상이 설득적 밀하기 담화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학습자들의 청중 구축 양상, 청중 상에 적합한 담화 구성 양상을 두루 포착하고자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였지만, 학습자들이 ‘특정 청중 변인을 중심으로 청중을 구축했을 때, 그에 따라 선택한 담화 구성 전략’의 목록 정도를 제시하였을 뿐, 그러한 선택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숫자가 18명으로 많지 않다는 점은, 이를 전체 고등학생 화자의 청중 고려 양상으로 일반화하기에도 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고등학생 화자 집단의 표본의 범위(성별 및 연령, 지역)와 양을 확대하고, 화자의 담화 구성 전략에 대한 실제 청중의 평가 및 청중의 태도 변용 정도와 연계하여 고등학생들이 활용하는 효과적인 청중 고려 전략을 도출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본 논문은 2013. 6. 30. 투고되었으며, 2013. 7. 8. 심사가 시작되어 2013. 7.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영석(2008),『설득 커뮤니케이션』, 나남.
- 민병곤(2005),「화법교육의 이론화 방향 탐색」,『국어국문학』140, 국어국문학회, pp. 305~332.
- 이명천(1999),「ELM 연구의 한국적 특성에 관한 고찰」,『광고학연구』10(4), 한국광고학회, pp. 151~178.
- 정재선(2012),「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이용한 뉴스 프레임 효과 연구: 국내 암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혜승(2009a),「초등학생 필자의 독자 인식 양상: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한국초등국어교육』39,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 494~534.
- _____ (2009b),「초등학생 필자의 독자 고려 정도와 방식」,『국어교육학연구』34, 국어교육학회, pp. 397~427.
- 정혜승·서수현(2009),「중등학생 필자의 독자 인식 양상」,『청람어문교육』39, 청람어문교육학회, pp. 213~250.
- 정희모(2012),「페렐만의 보편청중 개념과 작문의 독자 이론: 페렐만(Perelman)과 파크(Park)의 논의를 중심으로」,『작문연구』15, 한국작문학회, pp. 159-187.
- Carvalho, J. B.(2002), Developing audience awareness in writing,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25(3): 271~282.
- Hays, J. N & Brandt, K. S.(1992), Socio-cognitive development and students' performance on audience-centered argumentative writing, *Constructing rhetorical education*(edited by Secor, M. & Charney, D.),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Hollingworth, H. L.(1935), *The psychology of the audience*, NY: American Book Company.
- Hovland, C. I.(1959), Reconciling conflicting results derived from experimental and survey studies of attitude change, *American Psychologist* 4: 8~17.
- Jaffe, C.(2007), *Public Speaking: Concepts and Skills for a Diverse Society*(5th ed), Thomson Wadsworth.
- Kroll, B. M.(1984), "Writing for Readers: Three Perspectives on Audience",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5(2): 172~185.
- McKerrew, R. E., Gronbeck, B. E., Ehninger, D. & Monroe, A. H.(2003), *Principles and Types of public speaking*(Fifteenth ed), Pearson Education.
- Petty, R. E. & Cacioppo, J. T.(1986),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Central and peripheral routes to attitude change*, NY: Springer-Verlag, 리대룡 외 역(1999), 커뮤니케이션과 설득, 범우사.
- Williams, J. M. & Colomb, G. G.(2007), *The craft of argumentation*(3rd ed), Pearson Education, 윤영삼 역(2012),『논증의 탄생』, 흥문관.
- Wood, W.(1982), The retrieval of attitude-relevant information from memory : Effects on susceptibility to persuasion and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798~810.

고등학생 화자들의 설득적 말하기에 나타난 청중 고려 양상 연구 —남자 고등학생 자료를 중심으로

최영인

이 연구는 국어교육 및 화법교육에서 청중 고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이 그러한 청중 고려를 어떻게,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학습자들이 화자로서 청중에 대해 인식하고 청중 고려를 수행하는 양상이 어떠한가를 기술하려는 목적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에서 관찰한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은 공식적 상황에서의 설득적 말하기를 준비하고 수행함에 있어 청중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자신이 대면하게 될 청중의 특성을 다양하게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청중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설득 담화를 구성하는 방법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실제로 화자로서 자신이 구성한 설득 담화에 청중의 특성이 유의미하게 반영된 부분을 명시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고등학생들의 설득 담화 구성과 소통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화자들이 청중을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하려면 ‘청중’의 존재를 보다 구체화하고, ‘청중’의 특성과 ‘담화 구성 및 전략’ 등을 보다 유의미하게 연결 짓는 교육이 필요하며, 담화 상황에서 마주하게 되는 청중의 실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중 변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핵심어 국어교육, 화법교육, 설득적 말하기, 청중 인식, 청중 고려

ABSTRACT

Aspects on Audience Consideration of High School Student Speakers' persuasive speaking: centered on male high school students' data

Choi, Young-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in a situation wher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of audience consideration in Korean education have been agreed, what the aspects that high school students as speakers, who recognize audience, carry out audience consideration are.

In preparing and performing persuasive speaking of authentic male high school students for formal situations, the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audience and could describe a variety of characteristics of audience who they will face. However, they did not know how to configure persuasive discourse suitabl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dience as well as did not explicitly state the location or method whe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dience have been significantly reflected in the persuasive discourse they configured.

Audience consideration is a concept encompassing the process that a speaker 'construct audience' and 'proceeds to configure an appropriate discourse according to such construction'. With the result that the study observed and analyzed the configuration and interaction of the persuasive discourse of high school students, some implications necessary for enabling speakers to effectively consider audience in persuasive discourse education could be derived. First, students need to be able to experience the presence of 'audience' more concretely and authentically. Second, they should connect 'the characteristics of audience speakers construct' and 'configuration and strategy of discourse according to audience construction' more meaningfully. In addition, considering authentic

aspects of audience that speakers face in discourse situations, an educatio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audience can be considered in combination is necessary.

KEYWORDS Korean Education,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persuasive speaking, audience awareness, audience consideration